

유도전공자들의 미래지향목표가 진로자기조절 및 진로탐색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원희*(용인대학교 교수)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유도전공 대학생들의 미래지향목표가 진로자기조절과 진로탐색행동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파악하여 대학에서 유도전공 대학생들의 진로지도와 관련된 상담과 진로교육의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유도전공 대학생들의 올바른 진로태도를 형성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를 위해 경기도에 소재한 Y대학교에 재학 중인 유도전공 대학생 25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데이터 중 불성실한 답변과 무기입 등의 설문을 제외한 219부의 데이터를 확보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는 SPSS 18.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유도 전공자들의 미래지향목표는 진로자기조절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유도 전공자들의 미래지향목표는 부분적으로 진로자기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유도 전공자들의 진로자기조절이 진로탐색행동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미래지향목표, 진로자기조절, 진로탐색행동

* opchampion73@naver.com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대학생은 누구나 진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진다. 이러한 기대는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동으로 이어지는데(최우성, 2015), 이에 진로목표를 이루기 위해 목표에 대하여 끊임없이 고민하고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조민경, 2013). 이처럼 목표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목표 지향성이라 하는데 이는 어떤 일이나 행동을 꾸준히 하는 동기로써 진로 문제와 관련해서 중요하다. 최근에는 자기결정성의 연장선상에서 미래지향목표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손운영, 2014).

미래지향 목표는 인간이 미래에 이루고 싶은 목표로 금전적, 명예, 개인의 성장 등 미래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어, 최근 들어 진로 의사 결정이나 개인의 진로태도 성숙에 긍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강원덕, 안귀여루, 2010; 김보경, 2017; 안운정, 오현주, 김미경, 2011). 미래지향목표는 개인이 속해 있는 사회문화적 환경에 영향으로 다양하게 인식되고 변화하는 목표이다. 개인이 학습이나 사회활동 참여를 통하여 흥미나 강점 등을 발견하며 자신의 미래에 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Nurmi, 2005). 이러한 목표는 인생의 기준점으로 작용하여 목표를 추구하기 위한 시간과 노력의 투입, 생각의 방향, 감정 등을 조절하게 된다. 즉 자신이 바라는 자신의 미래에 대한 목표로 이에 도달하기 위하여 진로계획을 세우고 실행할 수 있도록 사고와 행동을 조절하는 진로자기조절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대학생들은 대학교육과정에 따라서 정해진 기간동안 학업과 진로준비를 병행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압박과 심리적인 불안을 경험하고 있다. 또한 유도전공 대학생들은 국내 유도시장의 불안정성과 좁은 진로 영역으로 타 전공에

비해 진로에 대한 불안감이 클 수 밖에 없다. 때문에 대학생은 자신의 상황을 고려하면서 주도적으로 진로를 개발하기 위한 능력을 함양해야 한다(이지연, 윤형한, 김나라, 2005). 즉, 진로 목표를 세우고 이를 실행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적절히 대처하며, 다양한 참여와 수행을 위하여 의식적인 노력인 진로자기조절 능력이 요구된다. 자기조절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인지, 정서, 행동을 지속시키는 과정으로(Zimmerman, 1989) 시간과 에너지 분배를 통해 목표달성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다. 이에 대학생들이 효과적인 진로개발을 하기 위해 자신의 진로목표달성을 위한 목표가 유지되도록 사고, 정서와 행동을 조절하는 진로자기조절이 필수적이고(김민정, 김봉환, 2014) 이와 관련한 변인들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기조절능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목표설정이 있다(Locke & Latham, 2006). 목표는 인간의 열망을 표현하는 심리적 표상이고 삶의 동기를 이끄는 원천이다(Austin & Vancouver, 1996). 인간은 목표를 인식할 때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긍정적인 수행과 결과에 도달한다(Emmons & Diener, 1986; Gollwitzer, 1993). 목표와 자기조절에 관련한 연구는 교육학, 심리학, 체육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행되고, 자신의 행동통제를 통하여 적응적인 방향으로 이끈다는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긍정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진로개발과 관련한 목표설정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자기조절의 관련성과 관련 변인에 대한 연구는 부진한 편이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효과적인 진로준비를 위한 진로자기조절과 관련한 변인들과 주요 변인과의 관계를 설정하고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진로자기조절은 목표유지를 위하여 스스로 생각과 감정, 행동을 조절하는 속성으로 자율성과 유사하다. 자율성은 행동을 시작하고 유지할 때 스스로 선택하면서 자율적인 행동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박고은, 이기학(2007)과 Guay(2005)는 진로결정에 관여하는 자율성이 진로탐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진로탐색행동은 자신과 외부환경에 대하여 지식을 쌓아가는 활동이다(Blustein, 1989). 또한 진로를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개인특성의 이해와 평가, 직업세계로의 진입을 위한 선택과 제약사항, 요

구사향을 이해하고 관련 정보들을 수집하고 분석하는 활동이다. Blustein(1989)은 진로탐색행동이 자율성 같은 개인의 내적동기성향과 관련되어 있다고 제안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진로자기조절은 진로탐색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미래지향목표는 대학 시기에 경험해야 할 필요한 과업이며 진로자기조절과 진로탐색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이에 진로상담과 지도에서 스스로 진로 결정과 목표에 확신을 가지고 진로계획을 위해 몰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위한 개입이 필요하다(황지영, 박재황, 2015). 이에 미래지향목표가 진로자기조절과 진로탐색행동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 달성을 통하여 대학에서 유도전공 대학생들의 진로지도와 관련한 상담과 진로교육의 기초자료를 제공하여 유도전공 대학생들의 올바른 진로태도를 형성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가설

이 연구에서는 유도 전공대학생을 대상으로 미래지향목표가 진로자기조절 및 진로탐색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유도전공 대학생의 미래지향목표는 진로자기조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유도전공 대학생의 미래지향목표는 진로탐색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유도전공 대학생의 진로자기조절은 진로탐색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연구대상은 경기도에 소재한 Y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중 유도전공자들을 대상으로 표집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2020년 3월부터 5월 까지 약 2개월 간 네이버오피스를 이용하여 250명의 유도전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총 250개의 데이터 중 무기입 및 불성실한 데이터를 제외한 총 219개의 데이터를 최종 데이터로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구체적인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빈도	퍼센트
성별	남	154	70.3
	여	65	29.7
학년	1학년	58	26.5
	2학년	57	26.0
	3학년	55	25.1
	4학년	49	22.4
입상경력	있음	123	56.2
	없음	96	43.8
수련기간	5년 미만	71	32.4
	5-10년	110	50.2
	10년 이상	38	17.4
	합계	219	100.0

성별은 남성이 154명(70.3%), 여성이 65명(29.7%)으로 나타났으며, 학년은 1학년 58명(26.5%), 2학년 57명(26%), 3학년 55명(25.1%), 4학년 49명(22.4%)으로 나타났다. 입상경력에서는 있음이 123명(56.2%), 없음이 96명(43.8%)으로 나타났다. 수련기간에서는 5년 미만이 71명(32.4%), 5-10년이 110명(50.2%), 10년

이상이 38명(17.4%)으로 나타났다.

2. 조사도구

본 연구에서는 목적 달성을 위해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설문지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관한 항목 4문항(성별, 학년, 입상경력, 수련기간), 미래지향목표 18문항(개인성장지향, 관계지향, 지역사회지향, 부지향, 명성지향, 이미지지향), 진로자기조절에 관한 항목 17문항(계획및점검, 진로환경조성, 진로몰입의지, 긍정적진로사고, 진로피드백), 진로탐색행동에 관한 항목 15문항(직업세계, 자기이해)으로 총 54문항 모두 5점 리커트(Likert) 척도로 구성하였다. 미래지향목표는 Lee, Mcinerney, Liem과 Ortega(2010)가 개발한 미래지향목표 척도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변안하고 수정, 보완한 최영미(2013)의 측정도구를 본 연구의 취지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였으며, 진로자기조절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는 김민정(2014)이 개발한 대학생 진로자기조절검사를 본 연구의 취지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였다. 진로탐색행동 척도는 최동선(2003)이 개발한 진로탐색행동검사 척도를 참고하여 본 연구의 취지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3. 타당도 및 신뢰도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 문항들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측정도구의 타당도 검증을 위해 최대우도법을 이용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회전방식은 사각 회전(oblimin)으로 하였고, 요인은 고유값 1.0 이상, 요인 적재치는 .5 이상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미래지향목표는 <표 2>와 같이 개인성장지향, 관계지향, 지역사회지향, 부지향, 명성지향, 이미지지향 등 6개의 요인으로 구

표 2. 미래지향목표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개인 성장 지향	관계 지향	지역 사회 지향	부 지향	명성 지향	이미지 지향	h^2
미래지향목표18	.905	.178	.214	.123	.048	.131	.931
미래지향목표16	.882	.165	.194	.191	.069	.131	.901
미래지향목표17	.859	.176	.266	.229	.056	.110	.907
미래지향목표8	.100	.952	.006	.070	-.039	.090	.931
미래지향목표9	.150	.909	-.027	-.011	.034	.120	.865
미래지향목표7	.174	.895	.064	.015	.017	.115	.849
미래지향목표15	.192	.050	.855	.245	.155	-.036	.855
미래지향목표13	.286	.043	.833	.211	.165	.037	.849
미래지향목표14	.195	-.053	.813	.298	.078	.146	.818
미래지향목표1	.229	.035	.167	.861	.120	.180	.870
미래지향목표3	.107	-.013	.322	.831	.214	.104	.862
미래지향목표2	.211	.073	.322	.826	.147	.120	.871
미래지향목표5	.011	-.048	.156	.094	.881	.150	.834
미래지향목표6	.209	-.040	.056	.262	.807	.014	.769
미래지향목표4	-.061	.129	.165	.071	.682	.370	.654
미래지향목표12	.161	.198	-.074	.028	.049	.818	.742
미래지향목표11	.195	.025	.222	.155	.153	.734	.675
미래지향목표10	-.002	.086	.003	.139	.174	.689	.532
Eigenvalues	2.774	2.704	2.588	2.543	2.101	2.005	
누적(%)	15.412	15.024	14.380	14.129	11.673	11.142	
누적(%)	15.412	30.436	44.816	58.945	70.618	81.760	
Cronbach's α	.956	.931	.900	.917	.776	.696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chi^2 = 2946.020$, df = 153, p = .000						
Kaiser-Meyer-Olkin	.829						

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Cronbach's α 계수를 통해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개인성장지향 .956, 관계지향 .931, 지역사회지향 .900, 부지향 .917, 명성지향 .776, 이미지지향 .696으로 일반적 요구기준치인 .7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신뢰도가 확보되었다(Nunnally & Bernstein, 1994). 또한, 구형성 검정과 Kaiser-Meyer-Olkin(KMO) 표준적합도 검정 결과는 적합한 수준(.829)으로 나

표 3. 진로자기조절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계획 및 점검	진로 환경 조성	진로 몰입 의지	긍정적 진로 사고	진로 피드백	h^2
진로자기조절1	.851	.192	.175	.067	.062	.800
진로자기조절4	.832	.145	.092	.106	.173	.763
진로자기조절3	.816	.112	.187	.148	.193	.773
진로자기조절2	.803	.059	.344	.040	.140	.789
진로자기조절13	.140	.907	.220	.084	.067	.902
진로자기조절14	.088	.897	.189	.050	.120	.864
진로자기조절12	.213	.840	.207	.033	.190	.831
진로자기조절16	.239	.253	.830	.022	.147	.833
진로자기조절15	.266	.121	.819	.077	.142	.783
진로자기조절17	.185	.318	.776	-.011	.152	.760
진로자기조절7	-.028	-.002	.039	.855	.042	.735
진로자기조절6	-.005	.005	.070	.830	.123	.709
진로자기조절8	.170	.112	-.045	.677	.040	.503
진로자기조절5	.176	.054	.038	.573	.249	.426
진로자기조절10	.233	.294	.144	.215	.808	.860
진로자기조절11	.110	-.058	.345	.117	.798	.784
진로자기조절9	.276	.386	.006	.232	.675	.735
Eigenvalues	3.167	2.840	2.431	2.377	2.036	
누적(%)	18.629	16.706	14.301	13.981	11.976	
누적(%)	18.629	35.336	49.636	63.617	75.593	
Cronbach's α	.901	.927	.872	.745	.818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chi^2 = 2337.239$, df= 136, p= .000					
Kaiser-Meyer-Olkin	.830					

타났다.

둘째, 진로자기조절은 <표 3>과 같이 계획 및 점검, 진로환경조성, 진로몰입의지, 긍정적진로사고, 진로피드백 등 5개의 요인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Cronbach's α 계수를 통해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계획 및 점검 .901, 진로환경조성 .927, 진로몰입의지 .872, 긍정적진로사고 .745, 진로피드백 .818 으로 일반적 요구기준치인 .7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신뢰도가 확보

되었다(Nunnally & Bernstein, 1994). 또한, 구형성 검정과 Kaiser-Meyer-Olkin(KMO) 표준적합도 검정 결과는 적합한 수준(.830)으로 나타났다.

셋째, 진로탐색행동은 <표 4>와 같이 직업세계, 자기이해 등 2개의 요인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Cronbach's α 계수를 통해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직업세계 .929, 자기이해 .926으로 일반적 요구기준치인 .7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신뢰도가 확보되었다(Nunnally & Bernstein, 1994). 또한, 구형성 검정과 Kaiser-Meyer-Olkin(KMO) 표준적합도 검정 결과는 적합한 수준(.921)으로 나타났다.

표 4. 진로탐색행동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직업세계	자기이해	h^2
진로탐색행동15	.871	.157	.783
진로탐색행동14	.853	.260	.796
진로탐색행동13	.820	.295	.760
진로탐색행동12	.806	.210	.693
진로탐색행동11	.800	.088	.647
진로탐색행동10	.748	.110	.571
진로탐색행동9	.729	.356	.658
진로탐색행동8	.670	.298	.537
진로탐색행동4	.113	.904	.830
진로탐색행동5	.219	.885	.832
진로탐색행동2	.196	.880	.813
진로탐색행동3	.132	.878	.788
진로탐색행동1	.246	.844	.772
진로탐색행동6	.346	.708	.622
진로탐색행동7	.292	.531	.367
Eigenvalues	5.368	5.100	
누적(%)	35.789	34.003	
누적(%)	35.789	69.791	
Cronbach's α	.929	.926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chi^2 = 2770.667$, $df = 105$, $p = .000$		
Kaiser-Meyer-Olkin	.921		

4. 자료처리방법

본 연구의 자료처리를 위해 SPSS 18.0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변인들의 요인구조에 대한 차원성과 타당도 검증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가설을 규명하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설검증을 위한 유의수준은 $\alpha = .05$ 로 설정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상관관계 분석

상관관계분석 결과(표 5), 미래지향목표, 진로자기조절, 진로탐색행동 간의 상관관계와 다중공선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대부분의 변인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중공선성이 의심될만한 높은 수준의 관계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Kline, 1998).

2. 미래지향목표가 진로자기조절에 미치는 영향

<표 6>에 따르면 미래지향목표가 계획 및 점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공차한계가 모두 .1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분산팽창인자(VIF)가 10 이하의 수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Durbin-Watson은 2.045로 기준값인 2에 근접하고 0이나 4에 가깝지 않아 잔차들 간 상관관계가

표 5. 요인 간 상관관계분석 결과

	a	b	c	d	e	f	g	h	i	j	k	l	m
a	1												
b	.336**	1											
c	.506**	.08	1										
d	.459**	.108	.593**	1									
e	.214**	.065	.346**	.403**	1								
f	.323**	.273**	.203**	.331**	.392**	1							
g	.575**	.493**	.242**	.350**	.131	.255**	1						
h	.262**	.327**	.061	.224**	.049	.197**	.368**	1					
i	.286**	.485**	.119	.279**	.117	.259**	.506**	.494**	1				
j	.322**	.053	.400**	.363**	.442**	.521**	.233**	.156*	.13	1			
k	.471**	.253**	.468**	.522**	.283**	.161*	.471**	.433**	.456**	.387**	1		
l	.818**	.605**	.629**	.542**	.366**	.665**	.577**	.315**	.418**	.473**	.495**	1	
m	.608**	.398**	.372**	.432**	.316**	.459**	.862**	.350**	.446**	.676**	.551**	.676**	1
M	3.915	2.989	4.352	4.321	3.968	3.271	3.624	3.342	3.177	3.832	3.951	5.058	25.753
SD	.989	1.111	.723	.818	.878	.852	.846	1.033	.995	.710	.812	.857	4.491

* $p < .05$, ** $p < .01$

a- 개인성장지향, b- 관계지향, c- 지역사회지향, d- 부지향, e- 명성지향, f- 이미지지향, g- 계획및점검, h- 진로환경조성, i- 진로몰입의지, j- 긍정적진로사고, k- 진로피드백

표 6. 미래지향목표가 계획 및 점검에 미치는 영향

변인	B	SE	Beta	t	Tol	VIF
(상수)	1.212	.309		3.925***		
개인성장지향	.375	.056	.438	6.740***	.610	1.639
관계지향	.258	.042	.338	6.112***	.841	1.189
지역사회지향	-.129	.080	-.110	-1.616	.557	1.795
부지향	.195	.070	.189	2.781**	.561	1.783
명성지향	-.018	.057	-.018	-.311	.739	1.353
이미지지향	-.012	.059	-.012	-.202	.738	1.356
$R^2 = .453$, $F = 29.246***$, Durbin-Watson = 2.045						

** $p < .01$, *** $p < .001$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김계수, 2008). 이에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미래지향목표의 하위요인인 개인성장 지향, 관계 지향, 부 지향 변인에서 진로자기조절의 하위요인인 계획 및 점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 R^2 .453으로 나타나 미래지향목표가 계획 및 점검을 설명하는 정도가 전체변량의 45.3%임을 알 수 있다.

<표 7>에 따르면 미래지향목표가 진로환경조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공차한계가 모두 .1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분산팽창인자(VIF)가 10 이하의 수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Durbin-Watson은 1.662로 기준값인 2에 근접하고 0이나 4에 가깝지 않아 잔차들 간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미래지향목표의 하위요인인 관계 지향, 부 지향 변인에서 진로자기조절의 하위요인인 진로환경조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 R^2 .172으로 나타나 회귀식의 설명력은 17.2%임을 알 수 있다.

표 7. 미래지향목표가 진로환경조성에 미치는 영향

변인	<i>B</i>	<i>SE</i>	<i>Beta</i>	<i>t</i>	Tol	VIF
(상수)	1.827	.464		3.938***		
개인성장지향	.153	.084	.146	1.826	.610	1.639
관계지향	.236	.063	.254	3.726***	.841	1.189
지역사회지향	-.229	.120	-.160	-1.911	.557	1.795
부지향	.289	.105	.229	2.738**	.561	1.783
명성지향	-.070	.085	-.060	-.820	.739	1.353
이미지지향	.073	.088	.060	.828	.738	1.356
$R^2 = .172$, $F = 7.328^{***}$, Durbin-Watson = 1.662						

** $p < .01$, *** $p < .001$

<표 8>에 따르면 미래지향목표가 진로몰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공차한계가 모두 .1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분산팽창인자(VIF)가 10 이하의 수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Durbin-Watson은 1.996로 기준값인 2에 근접하고 0이나 4에 가깝지 않아 잔차들 간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미래지

향목표의 하위요인인 관계 지향, 부 지향 변인에서 진로자기조절의 하위요인인 진로몰입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 R^2 .299로 나타나 회귀식의 설명력은 29.9%임을 알 수 있다.

표 8. 미래지향목표가 진로몰입의지에 미치는 영향

변인	<i>B</i>	<i>SE</i>	<i>Beta</i>	<i>t</i>	Tol	VIF
(상수)	.906	.411		2.203*		
개인성장지향	.062	.074	.061	.832	.610	1.639
관계지향	.384	.056	.429	6.843***	.841	1.189
지역사회지향	-.141	.106	-.102	-1.327	.557	1.795
부지향	.304	.093	.250	3.250**	.561	1.783
명성지향	-.018	.076	-.016	-.232	.739	1.353
이미지지향	.077	.078	.066	.983	.738	1.356
$R^2 = .299$, $F = 15.041^{***}$, Durbin-Watson = 1.996						

* $p < .05$, ** $p < .01$, *** $p < .001$

<표 9>에 따르면 미래지향목표가 긍정적 진로사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공차한계가 모두 .1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분산팽창인자(VIF)가 10 이하의 수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Durbin-Watson은 2.181로 기준값인 2에 근접하고 0이나 4에 가깝지 않아 잔

표 9. 미래지향목표가 긍정적 진로사고에 미치는 영향

변인	<i>B</i>	<i>SE</i>	<i>Beta</i>	<i>t</i>	Tol	VIF
(상수)	1.161	.270		4.296***		
개인성장지향	.055	.049	.077	1.131	.610	1.639
관계지향	-.072	.037	-.113	-1.957	.841	1.189
지역사회지향	.219	.070	.223	3.146**	.557	1.795
부지향	-.006	.061	-.007	-.105	.561	1.783
명성지향	.161	.050	.199	3.232**	.739	1.353
이미지지향	.338	.051	.406	6.580***	.738	1.356
$R^2 = .405$, $F = 24.029^{***}$, Durbin-Watson = 2.181						

** $p < .01$, *** $p < .001$

차들 간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해

석할 수 있다. 미래지향목표의 하위요인인 지역사회지향, 명성지향, 이미지지향 변인에서 진로자기조절의 하위요인인 긍정적 진로사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 R^2 .405으로 나타나 회귀식의 설명력은 40.5%임을 알 수 있다.

<표 10>에 따르면 미래지향목표가 진로피드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공차한계가 모두 .1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분산팽창인자(VIF)가 10 이하의 수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Durbin-Watson은 1.864로 기준값인 2에 근접하고 0이나 4에 가깝지 않아 잔차들 간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미래지향목표의 하위요인인 개인성장지향, 관계지향, 지역사회지향, 부지향, 이미지지향 변인에서 진로자기조절의 하위요인인 진로피드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 R^2 .386으로 나타나 회귀식의 설명력은 38.6%임을 알 수 있다.

표 10. 미래지향목표가 진로피드백에 미치는 영향

변인	<i>B</i>	<i>SE</i>	<i>Beta</i>	<i>t</i>	Tol	VIF
(상수)	.848	.314		2.700**		
개인성장지향	.176	.057	.214	3.109**	.610	1.639
관계지향	.119	.043	.162	2.767**	.841	1.189
지역사회지향	.167	.081	.149	2.061*	.557	1.795
부지향	.319	.071	.322	4.474***	.561	1.783
명성지향	.088	.058	.095	1.518	.739	1.353
이미지지향	.121	.060	.127	2.022*	.738	1.356
$R^2 = .386$, $F = 22.199^{***}$, Durbin-Watson = 1.864						

* $p < .05$, ** $p < .01$, *** $p < .001$

3. 미래지향목표가 진로탐색행동에 미치는 영향

<표 11>에 따르면 미래지향목표가 직업세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공차한계가 모두 .1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분산팽창인자(VIF)가 10 이하의 수치로 나

타나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Durbin-Watson은 1.956으로 기준값인 2에 근접하고 0이나 4에 가깝지 않아 잔차들 간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미래지향목표의 하위요인인 개인성장지향, 관계지향, 지역사회지향, 이미지지향 변인에서 진로탐색행동의 하위요인인 직업세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 R^2 .996으로 나타나 회귀식의 설명력은 99.6%임을 알 수 있다.

표 11. 미래지향목표가 직업세계에 미치는 영향

변인	<i>B</i>	<i>SE</i>	<i>Beta</i>	<i>t</i>	Tol	VIF
(상수)	.006	.028		.213		
개인성장지향	.370	.005	.427	74.467***	.610	1.639
관계지향	.259	.004	.336	68.776***	.841	1.189
지역사회지향	.365	.007	.308	51.392***	.557	1.795
부지향	.005	.006	.005	.773	.561	1.783
명성지향	-.002	.005	-.002	-.309	.739	1.353
이미지지향	.375	.005	.372	71.406***	.738	1.356
$R^2 = .996$, $F = 8278.483^{***}$, Durbin-Watson = 1.956						

*** $p < .001$

<표 12>에 따르면 미래지향목표가 자기이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공차한계가 모두 .1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분산팽창인자(VIF)가 10 이하의 수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Durbin-Watson은 2.083로 기기준값인 2에 근접하고 0이나 4에 가깝지 않아 잔차들 간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미래지향목표의 하위요인인 개인성장지향, 관계지향, 이미지지향 변인에서 진로자기조절의 하위요인인 자기이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 R^2 .494로 나타나 회귀식의 설명력은 49.4%임을 알 수 있다.

표 12. 미래지향목표가 자기이해에 미치는 영향

변인	<i>B</i>	<i>SE</i>	<i>Beta</i>	<i>t</i>	Tol	VIF
(상수)	7.942	1.577		5.037***		
개인성장지향	1.812	.284	.399	6.377***	.610	1.639
관계지향	.766	.215	.189	3.559***	.841	1.189
지역사회지향	.087	.407	.014	.213	.557	1.795
부지향	.648	.358	.118	1.809	.561	1.783
명성지향	.444	.291	.087	1.528	.739	1.353
이미지지향	1.068	.300	.202	3.560***	.738	1.356
$R^2 = .494$, $F = 34.527^{***}$, Durbin-Watson = 2.083						

*** $p < .001$

4. 진로자기조절이 진로탐색행동에 미치는 영향

<표 13>에 따르면 진로자기조절이 직업세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공차한계가 모두 .1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분산팽창인자(VIF)가 10 이하의 수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Durbin-Watson은 1.874로 기준값인 2에 근접하고 0이나 4에 가깝지 않아 잔차들 간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진로자기조절의 하위요인인 계획 및 점검, 긍정적 진로사고, 진로 피드백 변인에서

표 13. 진로자기조절이 직업세계에 미치는 영향

변인	<i>B</i>	<i>SE</i>	<i>Beta</i>	<i>t</i>	Tol	VIF
(상수)	1.296	.280		4.629***		
계획및점검	.379	.061	.375	6.200***	.661	1.513
진로환경조성	.007	.049	.008	.142	.697	1.436
진로몰입의지	.104	.054	.120	1.910	.608	1.645
긍정적진로사고	.380	.065	.315	5.883***	.841	1.189
진로피드백	.146	.067	.138	2.188*	.604	1.655
$R^2 = .486$, $F = 40.337^{***}$, Durbin-Watson = 1.874						

*** $p < .001$

진로탐색행동의 하위요인인 직업세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 R^2 .486으로 나타나 회귀식의 설명력은 48.6%임을 알 수 있다.

〈표 14〉에 따르면 진로자기조절이 자기이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공차한계가 모두 .1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분산팽창인자(VIF)가 10 이하의 수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Durbin-Watson은 2.262로 기준값인 2에 근접하고 0이나 4에 가깝지 않아 잔차들 간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진로자기조절의 하위요인인 계획 및 점검, 긍정적 진로사고 변인에서 진로탐색행동의 하위요인인 자기이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 R^2 .983으로 나타나 회귀식의 설명력은 98.3%임을 알 수 있다.

표 14. 진로자기조절이 자기이해에 미치는 영향

변인	<i>B</i>	<i>SE</i>	<i>Beta</i>	<i>t</i>	Tol	VIF
(상수)	-.818	.271		-3.024**		
계획및점검	3.939	.059	.742	66.565***	.661	1.513
진로환경조성	-.033	.047	-.008	-.696	.697	1.436
진로몰입의지	.022	.052	.005	.411	.608	1.645
긍정적진로사고	3.172	.063	.501	50.733***	.841	1.189
진로피드백	.046	.064	.008	.712	.604	1.655
$R^2 = .983$, $F = 2394.155^{***}$, Durbin-Watson = 2.262						

*** $p < .001$

IV. 논의

이 연구는 유도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미래지향목표가 진로자기조절 및

진로탐색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도출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도 전공자들의 미래지향목표는 진로자기조절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문병상(2011)과 Miller & Brickman(2004)은 현재의 과제 및 학업이 미래목표달성을 위해 도구적으로 지각하는 경향을 높인다고 하였다. 또한 내재적 미래지향목표를 가진 대학생들이 외재적 미래지향목표를 가진 대학생들보다 성적이 뛰어나고 다양한 학습전략을 보인다고 하였다(Vansteenkiste et al, 2004). 이 외 김보경(2017), 안윤정, 오현주와 김미경(2011), 강원덕과 안귀여루(2010)는 미래지향목표가 진로의사를 결정하거나 개인의 진로태도 성숙에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일부 지지하고 있다. 진로자기조절은 대학 졸업 후 자신이 바라는 진로목표에 도달하기 위하여 대학생활 중 자신의 생각, 행동,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이다. 따라서 자신이 졸업 후 사회에 진출한 모습과 관련하여 청사진이 구체화되기 쉬운 목표설정의 경향이 개인의 성장을 증시하는 경향보다 추후 진로와 취업 등을 위한 활동에 몰입하도록 하는 진로자기조절을 설정하는데 긍정적인 인식을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유도전공 대학생들은 미래지향목표를 높여 진로탐색행동을 긍정적으로 이끌어내야 할 필요가 있다. 먼저 목표수준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미래지향목표에 대한 자신의 목표가 실현가능한 목표인지 단기목표부터 중장기 목표까지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목표인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과 실제 수행은 다르기에 막연한 자신감이라면 오히려 개인의 꾸준함을 저해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진로상담을 통해 진로과제에 대한 성취경험을 확보하도록 계획하고 점검하는 방법이나 환경을 조성하도록 해 볼 수도 있다.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유도전공 대학생들의 진로탐색행동과 진로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유도 전공자들의 미래지향목표는 부분적으로 진로자기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윤소정과 김정섭(2012), 조한나(2015)는 미래지향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일수록 미래에 관심이 많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하여 현재의 노력이 미래의 보상으로 나타나기를 기대한다는 점에서 진로준비행동이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윤경과 김진강(2019)은 환대산업 전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미래지향 목표이 대학생들의 진로준비와 탐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결과 명성 지향, 개인성장 지향, 지역사회 지향이 대학생들의 진로준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학생들은 명성과 개인의 성장, 지역사회를 위한 자신의 역할을 찾는 노력이 진로에 대한 목표를 잡기 위해 노력한다고 볼 수 있어 본 연구의 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

따라서 진로자기조절이 진로탐색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확인되었기에 유도전공 대학생들의 진로자기조절 향상을 위한 교육과 지원 방안이 요구된다. 최근 심각한 취업난 속에서 졸업 후 자신의 진로를 찾기 위해 스스로 자신의 진로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취직과 적응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급변하는 노동시장을 이해하고, 대학 내 전공수업 뿐만 아니라 다양한 체험과 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미래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주도적으로 자신의 생활을 통제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시간을 만들어 노력하는 진로자기조절이 필요할 것이다. 학교 차원에서는 이를 위한 유도전공 대학생들에게 맞춰진 취업준비 프로그램이나 진로교육을 교과에 적용하는 등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유도 전공자들의 진로자기조절이 진로탐색행동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de Ridder(2011)는 자기조절이 목표지향행동과 같은 긍정적인 행동에 영향을 주고, 자기조절과정에 대한 의식적 통제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Miller & Byrnes, 2001; Purdie & McCrindle, 2002). 또한 김민정과 김봉환(2014)는 진로자기조절이 진로탐색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합리적 의사결정과 진로결정효능

감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이와 같은 결과들은 개인이 진로결정에 대하여 지각하는 자율성이 높을수록 진로결정과 관련된 과제를 잘 수행한다는 진로결정효능감을 통해 진로탐색행동 수준이 높아진다는 결과와도 일치한다(김은영, 2007; 박소연, 이숙정, 2013; Flum & Blustein, 2000; Lent et al., 2003).

이러한 결과는 자신을 격려하고 자신의 행동을 관찰하며 인지적으로 통제를 잘 사용할 수 있고, 진로문제에 대하여 의사결정을 잘 수행하려는 경향이 높다면 진로과제 수행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져 높은 진로탐색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인지정보처리이론에 의하면, 자신의 말, 자각이나 통제, 모니터링 등의 초인지가 직업의 정보를 활용하여 진로의사결정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정보를 수집하는 행동수행과정에 앞서서, 체계적이고 분석적인 진로의사결정 방식과 이들의 수행을 이끄는 진로자기조절이 자신이 유도라는 자신의 전공에 대한 방향성을 가지고 진로탐색행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유도전공 대학생들의 미래지향목표가 진로자기조절과 진로탐색행동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파악하여 대학에서 유도전공 대학생들의 진로지도와 관련된 상담과 진로교육의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유도전공 대학생들의 올바른 진로태도를 형성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를 위해 경기도에 소재한 Y대학교에 재학 중인 유도전공 대학생 25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데이터 중 불성실한 답변과 무기입 등의 설문을 제외한 219부의 데이터를 확보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는 SPSS 18.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상관관계분

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유도 전공자들의 미래지향 목표는 진로자기조절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유도 전공자들의 미래지향목표는 부분적으로 진로자기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유도 전공자들의 진로자기조절이 진로탐색행동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도전공 대학생의 미래지향목표가 진로자기조절과 진로탐색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따라서 급속한 사회적 변화와 취업난 속에서 목표를 설정하고 진로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진로탐색행동과 같은 현실적 측면으로 구체적이며 실제적인 활동을 촉진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후속연구를 위한 연구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다양한 지역과 학교가 아닌 한 지역의 단일 대학 내 재학 중인 유도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에 다양한 학교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향후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과 전공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다면 좀 더 의미있는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본 연구는 미래지향목표와 진로자기조절,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매개변인으로서 진로자기조절에 대한 매개효과나 조절효과에 대한 분석도 의의가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연구는 실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미래지향목표와 진로탐색행동 사이에서 진로자기조절 외에 자기효능감이나 진로결과기대, 등과 같은 변인들의 매개효과나 조절효과를 알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설정한 변인들 중 미래지향목표가 진로자기조절이나 진로탐색행동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살펴본 결과 일부 요인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설문조사가 가지는 한계로 설문 응답자들이 주변의 시선, 응답 결과에 대한 반응 등으로 인하여 자신의 솔직한 생

각을 드러내는데 있어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인터뷰형태의 조사를 통해 질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야할 필요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강원덕, 안귀여루(2010). 성취동기, 내재적 직업가치, 진로장벽이 고등학생의 진로 성숙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5(1), 161-175.
- 김계수(2008).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한나래.
- 김민정(2014). **대학생의 진로자기조절, 진로결정효능감, 합리적인사결정 및 진로탐색행동의 관계**.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민정, 김봉환(2014). 대학생의 진로자기조절, 진로결정효능감, 합리적인사결정 및 진로탐색행동의 관계. **진로교육연구**, 27(3), 27-45.
- 김보경(2017). **청소년의 삶의 목표, 삶의 만족도가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김은영(2007). 남녀 대학생의 자율성, 유능감,관계성이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4), 1079-1100.
- 문병상(2011). 미래지향적 목표의 검사도구 개발 및 타당화. **교육평가 연구**, 24(3), 665-683.
- 박고은, 이기학(2007). 진로결정자율성수준과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에서 진로자기 효능감의 매개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2), 409-422.
- 박소연, 이숙정(2013). 여대생의 진로결정자율성과 관계성이 효능감을 매개로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교육심리연구**, 27(3), 611-628.
- 손윤영(2014). **청소년의 자기결정성동기 유형에 따른 진로목표의 차이**.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 안윤정, 오현주, 김미경(2011). 청소년의 행동합정과 미래시간전망이 진로의사결정 능력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24(3), 99-116.

- 윤경, 김진강(2018). 진로결정몰입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가족탄력성의 조절효과: 현대산업을 전공하는 대학생을 중심으로. **관광경영연구**, 86, 519-540.
- 윤소정, 김정섭(2012). 한국형 Zimbardo 시간관 척도 타당화. **교육심리연구**, 26(2), 587-606.
- 이지연, 윤형한, 김나라(2005). **진로전환기 청소년의 진로개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조민경(2013). **대학생의 통제소재와 자기 기대신념이 진로목표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대학원.
- 조한나(2015). **시간관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생애목표, 목표불안정성의 매개효과 및 시간관 프로파일별 특성**.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 최동선(2003). **대학생의 진로탐색행동과 동기요인, 애착간의 관계분석**.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최영미(2013). **대학생의 미래지향목표, 근접하위목표, 과제도구성지각 및 자기조절전략간의 구조적 관계**.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최우성(2015). Q방법론을 이용한 관광전공 대학생의 창업동기유형이 창업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동기체계이론을 중심으로. *Tourism Research*, 4(4): 231-260.
- 황지영, 박재황(2015).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과 관련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 **직업교육연구**, 34(5): 73-101.
- Blustein, D. L. (1989). The role of goal instability and career self efficacy in the career exploration proces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5(2), 194-203.
- de Ridder, D. T. D., de Boer, B. J., Lugtig, P., Barkker, A. B., & VanHooft, E. A. J. (2011). Not doing bad things is not equivalent to doing right thing: Distinguishing between inhibitory and initiatory self-control.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0(7), 1006-1011.
- Emmons, R. A., & Diener, E. (1986). A goal-affect analysis of everyday situational choice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20, 309-326.

- Flum, H., & Blustein, D. L. (2000). Reinvigorating the study of vocational exploration: A framework for research.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8(3), 380-404.
- Gollwitzer, P. M. (1993). Goal achievement: The role of intentions. In W. Stroebe & M. Hewstone(Eds.), *European Review of Social Psychology*. 4, 141-185. Chichester, England: Wiley.
- Guay, F. (2005). Motivations underlying career decision-making activities: The Career Decision-making Autonomy Scale(CDMA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s*, 13(1), 77-97.
- Kline, R. B.(1998). Software review: Software programs for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mos, EQS, and LISREL. *Journal of Psychoeducational Assessment*, 16(4), 343-364.
- Lee. J. Q., McInerney. D. M., Liem, G. A. D., & Ortega, Y. P.(2010). The relationship between future goals and achievement goal orientations: An intrinsic-extrinsic motivation perspective.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35, 264-279.
- Lent, R. W., Brown, S. D., Schmidt, J., Brenner, B., Lyons, H., & Triestman, D. (2003). Relation of contextual supports and barrier to choice behavior in engineering majors: Test of alternative social cognitive model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0(4), 458-465.
- Locke, E. A., & Latham, G. P. (2006). New directions in goal-setting theory,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5, 265-268.
- Miller, R. B., & Brickman, S. J. (2004). A model of future-oriented motivation and selfregulation. *Educational Psychology Review*, 16(1), 9-33.
- Miller, D. C. & Byrnes, J. P. (2001). Adolescents' decision making in social situations A self regulation perspective.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22(3), 237-256.
- Purdie, N., & McCrindle, A. (2002). Self-regulation, self-efficacy and health behaviour change in older adults. *Educational Gerontology*, 28(5),

379-400.

- Nunnally, J. C., & Bernstein, I. H.(1994). *Psychological Theory*. New York, NY: MacGraw-Hill.
- Nurmi, J. E. (2005). *Thinking About and Acting Upon the Future: Development of Future Orientation Across the Life Span*, Mahwah.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 Austin, J. T., & Vancouver, J. B. (1996). Goal constructs in psychology: Structure, process and content, *Psychological Bulletin*, 120, 338-375.
- Vansteenkiste, M., Simons, J., Soenens, B., & Lens, W. (2004). How to become a persevering exerciser: Theimportanceofproviding a clear future goal in an autonomy-supportive way, *Journal of Sport & Exercise Psychology*, 26, 232-249.
- Zimmerman, B. J. (1989). Student difference in self-regulated learning,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2(1), 51-59.

ABSTRACT

The Effects of Future-Oriented Goals on Career Self-regulation and Career Search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Judo

Lee, Won-Hee(Youngin Univ.)

This study aims to provide basic data for forming the right career attitude of judo major college students by providing basic data of counseling and career education related to career guidance of judo major college students in college by grasping the effect of future-oriented goals of judo major college students on career self-regulation and career exploration behavior. For this study, a survey was conducted on 250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induction at Y University in Gyeonggi-do. Among the collected data, 219 copies of data were obtained, excluding unfaithful answers and insured input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frequenc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analysis, exploratory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SPSS 18.0 program.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future-oriented goals of the judo majors partially affect career self-regulation. Second, the future-oriented goals of the judo majors partially affected career self-regulation. Third, career self-regulation of judo majors partially affected career exploration behavior.

Key words: Judo, Future-Oriented Goals, Career Self-regulation, Career Search Behavior

논문투고일 : 2020.06.30.

심사일 : 2020.07.10.

심사완료일 : 2020.07.31.